

##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

김 정 민

최 연 실<sup>†</sup>

상명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를 통해 그들의 환경적 특성과 만학의 의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현재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50대 만학도 여성들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Mandelbaum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개념 틀에 따라 공통의 범주와 개념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추출된 범주들은 삶의 영역에서는 ‘원가족’, ‘결혼 후 가족’, ‘학교’, 전환점에서는 ‘진학 좌절’, ‘취업’, ‘결혼’, ‘학부모됨’, ‘중년기 위기’, ‘학교 입학’, 적응에서는 ‘상황에 대한 수용’, ‘자신의 기대 충족’, ‘가족관계의 변화’,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만학도 여성들이 대학공부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아정체성을 찾았으며 가족관계가 더욱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 경험을 추적하여 그들의 문제를 가시화함으로써 늦은 나이의 학습활동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연장된 노년기를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만학도, 생애사,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2013학년도 교내연구비(지원과제)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최연실,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Tel : 02-2287-5317, E-mail : yschoi@smu.ac.kr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한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유교적 전통이 강했던 한국사회에서는 예로부터 교육이 강조되어 왔는데, 근대화 이후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부터 학력이 계층 상승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학력을 더욱 중시하는 풍토로 이어졌고 학력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각 개인의 취업, 결혼,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인간적 능력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된 선별의 기준으로 작용하고(정태화, 2003), 출신 학교에 따른 '학벌'도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존재하기도 한다(김동훈, 2001). 학벌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병리현상으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의 독특한 발생형식이다. 학벌은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의 배후에서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이며, 하나의 권력이자 신분이며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은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 등과 같이 모든 사회의 집단주의의식에까지 깊이 파고 든 거대한 편견으로 존재한다(김현정, 2006).

우리나라는 전후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진학률도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나 남존여비의 유교사상,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령기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현재 중·장년기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공은화, 2007).

산업화 시대 초기인 1950년대 중, 후반에 태어난 사람들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70~80년

대 미취학은 여자가 남자의 2배에 달하며, 중·고등학교 졸업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고 대졸은 남자가 여자의 4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 진학률은 남녀 모두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자가 여자에 비해 높은 진학률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최순, 1986).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한 원인에는 기본적으로 빈곤이 조건으로서 작용하겠지만, 교육 기회에서의 남녀 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원인은 가부장제 사회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동일한 조건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여성들에게는 가정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강요되면서 빈곤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는 교육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배제되거나 박탈되었던 것이다(백종주, 2002). 부모들이 딸보다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더 많이 한 것은 '부계중심주의', 또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은 주변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못 배웠다는 약점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육열이 극심한 우리의 사회적 환경에서 실제로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못해줄 때에 큰 좌절을 겪는다. 우리나라에서 저학력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큰 스트레스로 많은 저학력 여성들이 인구조사나 가정환경조사서에 학력을 기재해야 할 때,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고등학교 졸업'으로 쓴다고 답하였다(백종주, 2002).

한편,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경험하고 살아온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중년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신체적, 생리적 퇴행현상을 경험하면서 여성의 자아개념은 더욱 낮아지고, 가족관계에서 남편으로부터

터의 소외감, 자녀의 독립에 대한 허탈감, 무력감을 느끼고 이런 감정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인 증후를 겪게 된다(홍완호, 1978). 여성이 평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0%이상으로(Hammen, 2003), 우울증 유병률이 여자가 남자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립정신병원, 2001). 이러한 상황에서 Northrup(2002)은 중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인생의 후반부를 좀 더 솔직하고 충만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이 시기야말로 많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는 소위 ‘희생양’의 역할을 중단하는 때라고 말한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삶이 길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에 건강과 질적인 삶을 향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이은정, 2003). 이 시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하며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고 자아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학령기에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저학력 여성들 역시 이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그동안 자신이 태어나 자란 가족이나 결혼해서 이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살아왔지만, 이제 삶의 형편이 나아지고 발달적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시기에 이른 중·장년의 여성들이 새로운 도전으로서 공부부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녀 모두에게 교육 혜택의 기회가 고루 주어지고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진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저학력 여성들의 학력에 대한 아쉬움, 더 나아가 ‘못 배운 한’을 풀고자 하는 마음은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 40년가량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이 중등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대학 공부까지 마친다는 것은 본인의 대단한 용기와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격려와 도움도 절실한 일일 것이다.

만학도는 사회통념상 진학 적령기를 경과하였다고 생각되는 25세 이상의 학생으로 전형적인 성인학습자이다(이정희, 2007). 한국사회에서는 2000년대 이후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만학도의 대학진학이 증가해 왔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25세 이상 연령층의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70년 7.4%이었던 것이 2006년 13.2%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정형돈, 2006). 이 가운데 중년기 만학도 여성들의 대학진학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실태 조사는 거의 전무해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만학 여성들의 진학 동기를 살펴보면, 배움 자체의 즐거움, 생활의 유용, 지식이나 기술 획득, 탐구심의 충족, 폭넓은 교양의 축적 등의 학습지향성 요인(배성의, 1996; 이정희, 1997; 최운실, 1986)과 학력에 대한 열등감 해소, 취업 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자격증을 얻기 위한 조건 취득 등의 실제지향성 요인(신미식, 2002) 등이 존재한다. 여성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시간적 제약이나 학비 부담, 가족의 물이해와 비협조, 정보의 부족 등 평생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적 저해 요인과, 오랜 학업 중단으로 학습능력에 대한 자신감 상실, 학습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남성학습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학습 참여가 저해되는 것으로 드러났다(최운실, 1990). 전반적으로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에는 학력 상승이라는 사회적 필요

욕구, 스스로의 관심사, 나눔과 배움이라는 개인적 욕구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방법(Creswell, 2005)을 통해 50대 만학도 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삶의 특성과 의미, 적응의 과정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생애사적 경험 자료에 접근해가는 Mandelbaum(1973)의 개념 틀을 도입하여, 50대 만학도 여성의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Mandelbaum의 이러한 세 가지 개념 틀을 채택한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의 생애경험에서 중요한 환경들을 분석하고, 그들의 삶에서 변화를 이끌어낸 계기를 살펴 보게 하며, 또 그들이 이러한 환경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였는지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인생에서 교육이나 배움, 학력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성’이라는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본 연구는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경험을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현재적 삶을 과거와 미래의 선상에서 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보다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해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이 평생발달적인 관점에서 중년기 이후의 사람들이 학습을 통한 경험과 의식의 확장을 이룸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 모색과 함의 도출에 토대를 제공하기를 기대하였다.

## 방 법

### 생애사 연구

생애사 연구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다(조용환, 1999). 생애사 연구방법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대상들의 경험과 인식을 드러내는 데 보다 적합하고(김영숙·이근무, 2008), 시대적, 계층적, 문화적, 성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경험하며 성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이고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Mandelbaum은 생애사 분석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연대기적 분석을 넘어 삶의 다차원적 영역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생애사 자료를 생물학적 영역(the biological dimension), 심리적 영역(the psychological dimension), 심리사회적 영역(the psychosocial dimension), 사회적 영역(the social dimension), 문화적 영역(the cultural dimension)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은 물론, 생애 중요한 전환점과 적응 양식까지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생애사 분석들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차원과 생애과정을 거쳐 유지되는 지속성이나 변화의 특성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Mandelbaum, 1973).

본 연구에서는 Mandelbaum이 제안한 생애 중요한 전환점과 적응 양식의 개념틀을 적용하여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특성, 공통적인 발달적 주제 및

사회적 맥락 등을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하여 삶의 영역, 전환점, 그리고 적응의 기본 틀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삶의 영역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을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경험들을 파악한다. 전환점은 참여자들의 주요한 생애전환점과 선행조건, 변화정도나 생활조건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역할과 관계로부터 획득하는 새로운 자기개념 등을 분석한다. 적응에서는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고유한 적응양식과 타인들과의 상호작용의 기본 주제를 도출한다. 이는 개인이 경험하고 주도하는 변화 과정과 생애 과정을 통해 이를 지속해 나가는 유지 과정의 두 측면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Mandelbaum, 1973).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으로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중졸 이하의 학력을 지니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50세 이상의, 결혼하여 가족이 있는 여성들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은 저학력 상태에서 중등학교 이상의 배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고 만학의 경험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에서의 생활이나 가족관계적 측면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과 만학도 학생 중 이 세 가지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참여자 7명과 접촉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들의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50대 중·후반의 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로서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출신이며 학력은 중졸 2명을 제외하면 모두 초졸의 배경을 지니고 있다. 배우자 학력은 고졸과 전문대 졸이 대부분이며 원가족에서의 출생순위는 5명이 장녀이거나 외딸이었고 1명은 중간, 1명은 막내딸이었다. 자녀수는 1~3명이었고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사람이 3명이었다. 결혼 상태는 이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재 결혼 상태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사전 예비조사를 거친 후 2012년 10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참여자들에 대한 일대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연구참여자들이 전 학기 수강과목에 과제로 제출했던 자서전을 동의하에 제공 받았으며, 비구조화된 면접 형식을 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와의 면접에는 한 사람 당 2~3회, 1회당 60~90분이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50대 만학도 여성들이고 그들의 특징은 배움을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질문 구성 근거를 그들의 생애경험을 추적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교육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데 두었다. 이러한 근거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질문방식을 사용하여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들이 어떠하셨는지요?”나 “당신의 삶에서 교육이나 배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까?”와 같이 질문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출생 년도	고향	결혼전 학력	배우자 학력	출생순위	자녀 수	결혼 상태
A	1953년	전북 정읍	초졸	고졸	1남 3녀 중 둘째, 장녀	2명(아들, 딸), 모두 출가	결혼
B	1954년	충남 공주	초졸	고졸	3남 1녀 중 둘째, 장녀	3명(딸, 딸, 아들)	결혼
C	1955년	충남 조치원	초졸	전문대졸	2남 5녀 중 다섯째, 4녀	3명(딸, 딸, 아들), 모두 출가	이혼
D	1955년	충남 진이	초졸	전문대졸	4남 1녀 중 넷째, 장녀	3명(딸, 딸, 아들)	결혼
E	1956년	충북 증원	중졸	전문대졸	2남 2녀 중 첫째, 장녀	3명(딸, 딸, 아들), 딸 1명 출가	결혼
F	1958년	인천	초졸	고졸	3남 4녀 중 일곱째, 4녀	1명(딸)	결혼
G	1959년	충남 연기	중졸	고졸	4남 1녀 중 다섯째, 장녀	2명(아들, 딸), 모두 출가	결혼

자서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면접을 시작하였고, 학업과 관련된 중요한 생애사건이나 생애과정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나 다른 연구참여자에게서 도출된 주제들이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 1, 2회의 면접시간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 심층면접을 시도하였다. 면접은 주로 연구참여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의 빈 강의실을 이용하였고, 면담의 전 과정을 녹취하면서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문제

수집되는 자료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 전 연구참여자와 라포 형성을 위해 수차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생애사 연구방법에 대해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박사과정 3명의 전문가들과 토

의를 거쳐 공동 작업으로 공통 주제들을 추출하였다.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연구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였고, 면접 시작 전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참여자들이 제공한 정보들이 논문에 포함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며, 연구 후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모든 자료들은 폐기할 계획을 밝힌 후, 연구참여동의서와 녹취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자서전 기록과 면담 전사 기록을 반복해서 보면서 주제들을 찾아내고 이를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부합되는 이야기들을 추려내어 자료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발달적 특성 등 같은 맥락의 이

이야기들을 함께 묶고, 그 이야기들의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주제어를 찾아냈다(김영천, 2012).

자료분석은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되었다. 첫 단계에서 개인별로 드러난 삶의 주제들을 정리하고, 다음 단계에서 연구참여자들 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영역, 전환적인 특성, 적응과정에서의 주제와 개념을 도출하고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총 14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삶의 영역에서는 ‘원가족’, ‘결혼 후 가족’, ‘학교’ 등 3개, 전환점에서는 ‘진학 좌절’, ‘취업’, ‘결혼’, ‘학부모됨’, ‘중년기 위기’, ‘학교 입학’ 등 6개, 적응에서는 ‘상황에 대한 수용’, ‘자신의 기대 충족’, ‘가족관계의 변화’,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 ‘미래에 대한 전망’ 등 5개의 공통 주제가 범주화되었다. 또한 그 범주들의 하위차원으로 삶의 영역에서는 10개(원가족 5개, 결혼 후 가족 3개, 학교 2개), 전환점에서는 10개(진학 좌절 1개, 취업 1개, 결혼 3개, 학부모됨 1개, 중년기 위기 1개, 학교 입학 3개), 적응에서는 11개(상황에 대한 수용 2개, 자신의 기대 충족 1개, 가족관계의 변화 6개,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 1개, 미래에 대한 전망 1개) 등 총 31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 결 과

다음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사를 개별적으로 간략하게 제시하고 본격적인 생애사 분석을 전개한다.

###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인 생애사 요약

#### 참여자 A

1953년 전북 정읍에서 1남 3녀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결정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였다. 오빠와 동생들은 모두 고졸이다. 취업할 때와 결혼할 때 고졸이라고 속여 이것이 탄로 날까 늘 조마조마했다. 28세에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고 모두 출가했다. 남편은 고졸로서 결혼 15년 만에 남편이 초졸인 아내의 학력을 알게 됐다. 자녀들이 모두 사립초등학교를 보낼 정도로 교육열이 높았다. 53세에 중등과정을 시작하였다.

#### 참여자 B

1954년 충남 공주 읍에서 7리 떨어진 산골에서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결정으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고, 다른 형제들은 모두 고졸, 대졸이다.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엄마, 사촌언니와 함께 살았다. 25세에 상경하여 간호조무사로 4년간 근무하다 31세에 고졸인 남편과 결혼하였다. 도시에 나와 생활하면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독립유공자로 학비가 면제 되어 대학을 갈 수 있었다.

#### 참여자 C

1955년 충북 조치원 읍에서 3km 떨어진 시골에서 2남 5녀 중 다섯째, 넷째 딸로 태어났다. ‘여자가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다’는 아버지의 생각으로 중학교에 가지 못했다. 자매들은 모두 초졸이고 남자형제 둘은 고졸과 대졸이다. 초교 졸업 후 집에서 지내다가 18세에 상경해 외삼촌 밑에서 사회생활을 했다. 23세에 전문대를 졸업한 남편과 결혼하여 2녀 1남을 두었고 모두 출가했다. 사업하다 부도가 나서 서류상 이혼을 하였고 결국 헤어졌다.

이혼 후 직장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딸이 사위에게 지시적으로 말하거나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다.

#### 참여자 D

1955년 충남 전이라는 시골에서 4남 1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모님이 남자형제들은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시켰지만 본인은 딸이라고 중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중매 이야기가 나올 때 자신이 초졸이라는 사실이 괴로웠다. 고졸인 남편은 결혼 후 “늘 예쁘다”며 많이 위해주었다. 초졸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아는 사람이 없는 인천으로 이사한 후 바로 중등과정에 등록했다. 딸이 학비를 대고 있으며 졸업 후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 열망이 있다.

#### 참여자 E

1956년 충북 증원군 신니면에서 2남 2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어려서 시골 외조부모 집에서 자라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인천으로 와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 아버지가 무섭고 바뀐 환경에 낯설고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다. 중학교 졸업 후 고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동생들과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살 어린 막내 삼촌에게 양보하고 진학을 포기했다. 26세에 전문대졸인 남편과 중매로 결혼하여 2녀 1남을 두고 있다. 결혼 후 10년 간 남편의 의치증과 폭력에 시달렸다. 둘째 딸의 권유로 야간 중·고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대학은 자신에게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날개’이다. 앞으로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과정까지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

#### 참여자 F

1958년 인천에서 나고 자랐다. 3남 4녀 중 막내로 세 살 때 아버지가 우물에 빠져 자살했다. 언니 오빠들은 모두 고교를 졸업했으나 본인은 초등학생 때 신병이 발병해 중학교 진학을 못했다. 집안이 어려워 엄마가 절에서 공양주로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28세에 1년 연하인 고졸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남편이 몰래 건네준 돈으로 혼수와 예단을 잘 해 가서 시댁 어른들에게 인정을 받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크다, 지금도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대학도 1년간 휴학했다. 졸업 후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갱년기 우울증이 심했고 공부를 통해 극복했다.

#### 참여자 G

1959년 충남 연기군에서 4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외동딸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오빠들은 모두 고졸 이상이다. 중학교 졸업 후 가족들이 고교 진학을 권했으나 공부하기 싫어 진학하지 않았다. 취업할 때 고교에 진학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오빠들이 모두 일찍 죽었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셨다. ‘고졸’이라고 속이고 결혼하여 마음에 걸렸고, 결혼 후 할머니와 시아버지 병수발을 혼자 다 들면서 자신이 집에서 일만 하는 ‘식모 같다’는 생각에 많이 우울했다. 자신이 대학을 다닌다는 사실이 ‘졸도’할 만큼 좋다. 대학에 다니면서 중년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가족관계가 상당히 향상되었다.

####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사 분석

연구참여자들인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사 자료는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

역, 전환점, 적응의 세 가지 개념 틀에 따라 분석되었다. 그들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한 동일사건들이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에 모두 관련될 수 있으며, 면접자료를 통해 찾아낸 공통 개념들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개념 틀 안에서 주제를 범주화시키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생애에 나타난 주제의 범주화와 개념화는 구체적으로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 삶의 영역

삶의 영역에서는 연구참여자인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회적 차원들과 중요

한 경험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범주는 원가족, 결혼 후 가족, 그리고 학교였다.

### 원가족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상급학교 진학을 원했으나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진학을 포기하였고, 단 한 마디의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다. 부모님이 이분화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남자 형제들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였으나 딸들은 포기하였고, 맏딸이라 희생한 경우도 있다. 원가족과 관련해서는 지리적 낙후성, 가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리적 낙후성</li> <li>- 가부장제의 영향</li> <li>- 따뜻한 부모님</li> <li>-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li> <li>- 맏딸로서의 희생</li> </ul> </li> <li>▪ 결혼 후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집살이</li> <li>- 가부장적인 남편</li> <li>- 자상한 남편</li> </ul> </li> <li>▪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부학교</li> <li>- 대학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학 좌절</li> <li>▪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허위 기재</li> </ul> </li> <li>▪ 결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을 속이고 결혼함</li> <li>- 남편에게 무시당함</li> <li>- 열등감</li> </ul> </li> <li>▪ 학부모됨</li> <li>▪ 중년기 위기</li> <li>▪ 학교 입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력 탄로에 대한 두려움</li> <li>- 대학의 의미</li> <li>- 자존감 향상</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황에 대한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딸로서의 희생 감수</li> <li>- 아내로서의 순종 수용</li> </ul> </li> <li>▪ 자신의 기대 충족</li> <li>▪ 가족관계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의 격려와 지지</li> <li>- 부모님에 대한 용서</li> <li>- 부부관계의 향상</li> <li>- 자녀들의 엄마에 대한 자부심 형성</li> <li>- 역사회화</li> <li>- 시대 식구들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 형성</li> </ul> </li> <li>▪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사로서의 포부</li> </ul> </li> <li>▪ 미래에 대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식</li> </ul> </li> </ul>

그림 1.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생애에 나타난 주제의 범주화와 개념화

부장제의 영향, 따뜻한 부모님,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맏딸로서의 희생 등의 하위차원의 개념이 도출되었다.

**지리적 낙후성.** 전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던 산업화시대에 지리적으로 도시와 먼 시골에 살수록 새로운 정보를 얻기 힘들어 ‘딸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고 있었다. 현재는 고향에 가보면 딸들도 중학교에 진학시키는 달라진 분위기를 보면서 연구참여자들은 읍내와 조금만 가까이 살았어도 부모님이 조금 더 깨어서 딸도 상급 학교를 보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교육 수준이 낮은 마을이었는데 아버지가 “여자는 많이 배우면 가서 잘 살지 못한다, 순종하지 않는다”고 딸들은 안 가르쳤어요... 우리 아버지가 농사짓지 않고 도시에서 깨우쳤다면 우리도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참여자 C).

정말 하늘만 보이던 동네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형적인 것도 무시 못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친구들은 중학교 간 사람이 없어요... 네 살 밑 동생부터는 너도나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내가 좀 중간에서... 우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참여자 D).

연구참여자들은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홍역 등으로 유아사망율이 높던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출생신고를 늦게 하여 학교를 늦게 들어가고, 먼 시골 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학교 가기 위해 산길을 2km쯤 걸어서 다녔는데 진달래 따 먹고 한 아름 꺾어서 교실에 꽂아놓고, 친구들과 짬뽕, 버찌, 딸기 따 먹으면서 논둑, 밭둑, 산 속을 누비고 다녔어요... 6학년 때 수학여행으로 충남 일주를 했는데 태어나서 가장 멀리, 가장 넓은 곳을 처음 가 본 것이었어요. 기차, 사과밭 그 때 다 처음 봤어요. 부여 가서 고란사에만 있다는 고란초를 처음 보고 너무 신기했고, 저녁노을, 붉고 큰 해는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참여자 B).

저 어릴 때 전기가 안 들어와서 호롱불과 램프를 켜고 밤이면 반딧불이 장관이었어요... 5, 6년대에는 홍역으로 죽는 애들이 하도 많아 돌 넘긴 아이들만 호적에 올려 주었어요.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었는데 돌 전에 죽었대요... 저도 호적에 늦게 올려서 10살에 입학했어요. 저는 또래보다 키도 크고 나이도 많아 선생님 심부름을 도맡아 했고 공부도 잘했어요. 학교 가려고 이십 리 길을 왕복하며 걸어 다녔는데 학교 가는 게 참 좋았어요(참여자 D).

**가부장제의 영향.** 여성들이 학교교육에서 배제된 데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했다. 즉, 우리 사회에 가부장적이고 남녀차별적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가족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따라 나이 어린 여성들이 산업화의 현장에 내몰렸으며, 사회화에 따라 여성들 자신이 개인의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남자 형제들과 동생들을 위해 자기희생 등을 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말씀이 없고 엄격하셨고 할

머니는 자상하셨지만 엄하셔서 우리 형제들은 싸워서 울다가도 할머니가 회초리로 딱 딱 세 번 방바닥을 치면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다보니 자기주장을 못하고 순종적이고 착하다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사촌언니와 큰엄마와 함께 살았어요. 내 친구들은 우리 집에 놀러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음 놓고 떠들며 놀 수 있는 집이 아니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집이었으니까요(참여자 B).

공부를 못하면 다른 집은 아버지가 야단을 쳤는데 우리 집은 큰 오빠가 야단을 치고 때렸어요. 어려서는 얼마나 오빠를 미워하고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공부가 싫었는데 오빠한테 혼나는 게 싫어서 더 싫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G).

**따뜻한 부모님.** 연구참여자들은 기억할 수 없는 무서운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사랑했던 따뜻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자랄 때 막내만 아버지 무릎에 가서 앉고 했지, 우리는 감히 못했어요... 그래도 아프면 주무시다 일어나서 주물러 주시고 문질러 주시고 그랬어요... 어려서 할머니가 많이 보듬어 주셨어요. 비교적 그 시대에 많이 받고 잘 살았죠.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참여자 B).

저희 아버지는 자식들을 한 번도 때려보지 않으셨어요. 뭘 잘못해도 “아휴,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워하시고 참 잘 하시는데 교육면에서만 그러셨

어요(참여자 C).

**아들, 딸에 대한 차별.** 다른 남자 형제들은 모두 고등학교나 대학을 나왔지만, 연구참여자들은 딸이라는 이유로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던 경험을 지니고 있다.

아들은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빠는 고등학교 나오고, 막내는 대학까지 나왔어요... 나머지는 모두 중학교(공민학교)만 나왔어요...(참여자 C).

할아버지가 딸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하더라고요. 아들 셋에 그 밑에 딸인데도... 그게 그냥 ‘세상사는 게 그렇구나’라고 느껴서 반항도 안하고 하라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오빠들은 남자라고 다 고등학교, 대학도 나오고 그랬죠(참여자 D).

**만딸로서의 희생.** 교육 기회에 있어 남녀 불평등은 물론 만딸인 경우 다른 형제들을 위해 교육 기회를 양보해야하는 경우가 많았다.

오빠 있고 제가 둘째예요. 장녀예요, 오빠는 고등학교 나오고, 동생들은 하나는 중학교를 나오고 하나는 고등학교를 야간을 갔죠... 아무래도 만딸이라 심부름을 조금 더 했겠죠(참여자 A).

저희가 4남매데 2남 2녀예요. 제가 큰딸이고, 저보다 한 살 적은 삼촌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그 삼촌이 고등학교를 가고... 제 밑에 셋이 다 다니고 그렇게 다 보내 줄 수가 없으니까, 다섯씩은 힘들었죠. 그때 아버지가 경찰공무원이었는데 살기가 굉장

히 힘들었어요... 힘들다고 “너는 가지 마라” 하셨어요. 그래서 속상하고 그랬는데 아무 표현도 안 했어요... 제가 일생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표현도 안 하고. 또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하고. 동생들은 학교를 다 갔죠. 고등학교까지는... 전 진짜 그런 제가 싫은데 안 바뀌어요. 저는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참여자 E).

### 결혼 후 가족

연구참여자들은 결혼 후 시집살이를 하거나 시집의 간섭을 받고 살거나 가부장적이고 공격적인 남편과의 결혼생활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대조적으로 자상하고 지지적인 남편을 만난 경우도 있다. 결혼 후 가족과 관련해서는 시집살이, 가부장적인 남편, 자상한 남편 등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시집살이.**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결혼하여 시집살이를 하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할머니부터 시아버지까지 대소변을 받아내며 병수발을 하고, 때로는 시집 조카들을 거두며 힘든 생활을 한 경우가 있었다.

큰형님 네 애들이 많아요. 큰엄마가 안 계셔서 결혼하고 아주머니가 외국으로 돈 벌러 가신다고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집에 있었어요... 금세 임신 돼서 입덧 끝나니까 애들이 오더라고요. (남편이)조카들을 엄청 챙겨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참여자 B).

지금은 어머님만 함께 삽니다. 79세시죠.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흰 4대가 같이 살았어요. 그때가 제일 위기였

던 것 같아요... 할머니서부터 아버지까지 병간호했고, 시아버님이 와상이었어요. 걸어 다니지 못해서 오줌똥을 받아냈어요. 어머님은 안하시더라고요. 그냥 등 돌리고 계셔서 거의 내가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못 버티겠더라고요(참여자 G).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되어서 이혼을 생각했지만 경제력이 없고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참고 산 경우도 있었다.

시집 와서 내 개인적인 생활은 없고 오로지 시댁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식모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했었죠. 너무 내 존재감이 없고, 시부모님, 남편, 아이들, 시동생 위해서만 살고. 저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서 ‘이렇게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많이 했는데, 옛말에 ‘자식이 끈’이라고 그냥 참고 살게 되더라고요...(참여자 G).

**가부장적인 남편.** 70, 80년대에 결혼한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인 남편들과 살면서 자신들도 내면화된 가부장적인 가치를 가지고 남편에게 맞추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온 경험이 많다.

남편이 아이들 옷차림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규제하고 엄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어른들한테 꼭 존댓말 해야 되고... 아빠 옆에서 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고, 남편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는 어딜 가서도 자기 맘에 들어야 돼요(참여자 C).

신랑이 의처증이 있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는 계속 때리고, 폭력을 썼어요. 크게는 안 해도 반복적으로. 어머니 말씀 듣고, 내 말은 안 믿고, 제가 말을 하면 핑계라 그러니까 변명도 나중엔 안 했죠... 첫애 때 안 살려고 했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엄마에게 물었더니 “니가 안 살려면 애를 떼어놓고 나와라” 하세요. 그래서 “그러지 못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살아라.” 해서 또 애 낳고 살았어요, 둘을(참여자 E).

남편이 좀 대화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그냥 참는 거죠. 얘기하다보면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냥 참는 게 우리 가정을 유지하는 거구나 싶어서 참아버렸어요... 딸이 간혹 이야기를 해요. “아빠한테도 가사분담을 하지 왜 엄마가 ‘원더우먼’처럼 혼자 다 했느냐? 엄마도 문제는 있었다.”고(참여자 G).

**자상한 남편.**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을 아껴주는 자상한 남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고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성장해준 자녀들에게 만족하며 화목한 가족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저희는 진짜 주변에서 너무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됐다는 소식을 알고는 “그런 부부도 갈라서냐?”고 얘기할 정도로. 남편이 시장가면요, 콩나물 500원어치도 내 손에 안 들렸어요, 자기가 다 들고. “사람들이 무거운 것 혼자 다 들면 나 욕 한다.”고 “몇 개 달라.”고 하면 “괜찮다.”고, 굉장히 가정적이고 그랬는

데...(참여자 C).

제가 ‘정말 내가 이쁜 건가’ 생각했어요. 맨날 이쁘대요. 그랬어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러는데. 그러면 애들이 “뽀, 뽀” 그래요. 애들 아빠가 이쁘다는 소리죠. 착각하고 살았다니까요(참여자 D).

### 학교

학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으로 자리 잡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초등교육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어서 미진학으로 인해 미래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크게 낙담하고 실망한 채 진학하지 못한 자신을 수치스러워하며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된 학교는 자신의 못 배운 열등감을 해소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삶의 터전이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주부학교, 대학교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주부학교.** 연구참여자들은 주부학교 과정을 통해 중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새로운 교우관계를 맺고 성취감을 느끼며 삶의 활력을 찾고 자아정체성을 찾는다.

학교에 있는 시간에는 짧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내 생활이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갖는 시간이었거든요(참여자 G).

중학교 때는 전교 1등을 해가지고 표창장까지 받고 공부를 잘했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게다가 옷을 잘 입고 다니니까 상당히 ‘멋쟁이’라는 소리, ‘삼선동 멋

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선생님들은 제 마음을 아는지 저를 감싸 주시더라고요(참여자 F).

**대학교.** 연구참여자들이 생각하는 대학의 가치는 적령기 학생이나 적령기에 졸업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많은 고통과 좌절을 겪고 이뤄낸 것이기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다.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지만 공부를 통해 건문이 넓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삶의 의욕과 희열, 그리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하기로 한 결정한 자신을 대견해하고 자존감이 높아진다.

부러울 게 없어요. 동생들은 옛날에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대학을 못 갔잖아요. 근데 저는 옛날에 못 배웠다고 지금 대학까지 가잖아요. 나는 누구한테라도 먹고 살만하면 대학가라고 권하고 싶어요. 누구한테든지... 학교 졸업장이 없고, 대학까지 못 와서 진짜 어깨가 움츠러졌는데, 당당하죠, 부러울 게 없죠,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부러울 게 없었어요(참여자 A).

겉으로는 티를 안내도 속으로라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저 혼자. 밤마다 늘 감사를 합니다(참여자 D).

대학 입학식 날 쪽 앉잖아요. 2학년 선배가 와서 저한테 “학부모석은 뒤에 마련됐습니다. 뒤로 가서 앉으세요.”, 이래요.

난 그냥 미소로만 답을 했어요. 근데 또 와서 학부모석은 뒤에 있다고. 그때도 그냥 웃었어요. 세 번째 와서 애길 하길래, 인상을 쓰고 찌려보면서 “저도 학생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냥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때 기분을. 제가 바라고 고대하던 대학에 들어왔구나,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더라고요(참여자 G).

### 삶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분석은 연구참여자들의 생애주기에 있어서 전환점이 된 중요한 사건과 이를 통한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전환점으로 나타난 공통의 범주는 진학 좌절, 취업, 결혼, 학부모됨, 중년기 위기, 학교 입학이었다.

### 진학 좌절

아버지의 결정에 한 마디도 하지 못한 채 진학을 포기한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진학 좌절은 삶의 국면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들에게 있어 학교를 못 가고 하고 싶은 공부를 못했다는 평생의 한과 열등감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다니려고 마음먹었죠, 언제든지. 내가 늙어서라도 학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학교를 못 다닌 게 일종의 한이죠(참여자 A).

그때는 곤색 후레아 치마에 하얀 칼라 한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럽고 나도 입어봤으면 해서...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만 해도 그 교복치마 못 입은 게 한이 됐었는데, 제가 대학교 오고 나니까 그게 조금 해소가 됐습니다(참여자 O).

### 취업

**학력 허위 기재.**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취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막상 취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학력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곤란을 겪은 경우가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학력란에 허위로 학력을 기재하고 열등감과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직장 다닐 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중학교 졸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학교 나왔다”고 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이 요구되면) “고등학교 나왔다”고 하고. ABC 같은 거 어중떠게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다녔죠. 학력을 속일 수밖에 없었죠.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뭐. 직장 다니려면 (참여자 A).

저는 처음엔 열등감 같은 것은 없었는데 취업할 때 졸업란에 쓸 때, 좀 그랬어요(참여자 G).

### 결혼

연구참여자들에게 결혼은 삶의 전기를 맞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그들은 대개 결혼을 할 때, 고학력의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기에 속상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학력을 속이고

결혼함, 남편에게 무시당함, 열등감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결혼, 중매 얘기 나올 때... 학교 못 간 게, 그때가 참... 아마 제 삶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냥 못 배웠어도... 좀 못 배웠다고 그런 것을 다 포기했거든요. 결혼하기 전예요. ‘제가 좀 못 배웠지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한테 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고(참여자 D).

**학력을 속이고 결혼함.** 결혼 상대를 만나 열떨결에 ‘고졸’이라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결혼 후에는 사실이 밝혀지고 들통 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온 경우가 많았다.

많이 배우고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야 좋은 배우자도 만나고 자식 키울 때도 제대로 양육도 하고 잘 키울 수 있는 거죠... 결혼할 때 학교를 속였죠(웃음). 나중에 여권 만들 때 알게 됐는데, (남편은)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한 15년 지나서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어요(참여자 A).

남편과 사귄 때 “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어쨌거나 학교 들어갈 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참여자 G).

**남편에게 무시당함.** 연구참여자들은 저학력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없고 남편이 무심코 한 말이나

남편의 태도에 대해서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제가 초등학교 나와서가 아니라 은연중에 절 무시하더라고요. 경리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집에 있으면 뭐하나? 제가 사무실에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뭘 알아서 그걸 한다고 가냐?”고 해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배웠다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아이들 공부 가르쳐줄 때라든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배운 게 굉장히 속상했었어요(참여자 C).

근데 남편이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성적도 아주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고 업신여기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언어폭력’ 엄청 썼어요(참여자 E).

**열등감.** 자신이 못 배웠다고 위축됨으로써 사람들을 만날 때 자신이 없고 작은 것에도 열등감을 느끼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런 거를 느끼죠.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어려서 접해야 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족함을 느꼈지요(참여자 B).

시골에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한 번도 안 갔어요. 거기 교장 하는 친구도 있고요, 뭐 수학교사, 좀 잘 돼서 간 친구들이 꽤 있어요, 가면 괜히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 갔거든요(참여자 C).

### 학부모됨

연구참여자들은 매년 자녀들의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자신이 마치 ‘죄인’ 같다고 느낀다. 본인이 교육을 못 받아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녀교육과 모든 결정에 있어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고 남편의 무시에 자존심이 상하며 남편이 무심코 한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 학부모가 되어 교사와 다른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학력이 알려져 아이에게 불이익이 갈까 위축되고, 필요 이상으로 선생님께 잘 하거나 학교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자녀가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영어를 몰라 자책하는 등 학력 콤플렉스를 가진 채로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느낀다.

가정환경조사서 같은 거 쓸 때, 거짓말로 썼어요. 고졸이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참여자 B).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에 부모 학력 적을 때 자존심이 팍팍 상했어요. 취업란에 적을 때, 아이들 환경조사서 쓸 때, 그때부터 꼭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설계가 들어간 거죠(참여자 G).

### 중년기 위기

순응과 희생을 여성적 삶의 가치로 삼고 살던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들 교육이 다 끝나고 출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중년기 위기’를 맞는다. 질병, 이혼, 고된 시집살이, ‘빈 등지’ 증후군 등을 경험하면서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가족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을 겪는데, 이는 이 연령대에 있는 여성들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와 같은 교육기회가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에 자아정체성을 검토하면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 등이 우울감과 연결되어 중요한 위기의 이슈로서 등장한다.

마흔 일곱 살쯤에 아프면서 우울증을 한 번 겪었어요... 잠도 잘 못 자고, 배란다문 열어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 쳐다보고 울고. 그해 11월부터 시작해서 그 겨울이 좀 그랬던 거 같아요... 여름에 다리를 빼었는데 잘 안 낫고 집에 갇혀있으니까 자꾸 답답해지더라고요. 우울증인 줄도 몰랐는데. 병원에서 준 약이 우울증 약이더라고요... 남편 고생 엄청 시켰어요. 남편을 달달달 볶았어요. 그렇게 우울한 이유 중에 큰 것이 제 처지인데, 못 배워 남보다 못한 처지이니 제가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참여자 B).

40대 후반에 폐경이 되면서 우울증이 남들보다 심하게 오더라고요. 많이 아팠죠. 허구한 날 누워있고 아프면 실려 가고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정신과 약도 먹고... 죽고 싶었어요. 19층에 사는데 자꾸 뛰어내리고 싶더라고요... 전 정도가 좀 심했죠. 제가 너무 한심한데... 다들 잘 배워 무엇인가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없고 희망도 없어 보이고...(참여자 F).

### 학교 입학

창피함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50대에 다시 시작한 공부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삶의 전환점이 된다. 주부학교에 다닐 때는 학

력이 탄로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과 용기를 얻어 대학에 도전하고 대학 생활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찾는다. 연구참여자들인 만학도 여성들은 주부학교를 다니는 과정 속에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면서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고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활력을 찾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학력 탄로에 대한 두려움, 대학의 의미, 자존감 향상 등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학력 탄로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학력이 교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주부학교에 다니는 사실을 가족 외에는 알리지 않는다. 면접 시 연구참여자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지니고 있었던 중등학교 과정의 주부학교보다 대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즐거워한다.

처음에 동네 학교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누가 볼까 봐 너무 진짜 몸이 오그라지는 것처럼 힘들었어요(참여자 B).

OOO(주부학교)은 다 속였어요. 몰라요. 밤에 가는 거니까,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애기 본다.”, “식당에 저녁에 가서 일하고 온다.”. 또 애기 낳아서 “애기 보러 간다.” 그랬는데, 대학 다니는 건 교회에서 사람들이 조금 알아요(참여자 E).

**대학의 의미.** 이들에게 대학은 적령기 대학생들이 갖는 가치보다 훨씬 크다. 대학은 연구참여자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다. 대학을 들어온 후 모든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한이 풀렸다.”는 표현을 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학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고 하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 대학은 ‘날개’, ‘졸도’, ‘꽃’, ‘축복’, ‘의욕’, ‘꿈’, ‘행복’을 의미한다고 이름 붙인다. 그 외에도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대학을 다니는 것에 대해 ‘너무 좋다’, ‘날아갈 것 같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표현을 하며 대학생활을 소중히 여긴다.

그냥 내 인생 끝에서 ‘꽃’이라 할까요?... 자기만족, 자기치유라 그럴까? 대학은 이제 나도 부딪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우리 애들한테. “그래도 나는 주어진 조건에서 행운이었다, 그래도 잘 살았다.”(참여자 B)

(나 자신에 대해서) 예전에는 한 2, 30 점? 지금은 공부하면서 나에 대한 것을 찾고 나니까 8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참여자 C).

대학은 한 마디로 ‘날개’예요. 맘대로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지금도 가정에서도 눈치는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눈치를 안 보는 거죠... 내가 날개를 달았다는 거는 내가 신랑한테 너무 구속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날개를 달고 날아가면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참여자 E).

대학은 ‘졸도’예요. 일단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남들이 “꿈!, 꿈!” 그러는데 저한테는 대학 입학이 꿈이었거든요. 정말 소원을 다 이룬 것 같은 성취감이 왔었어요. ‘졸도’ 전에는 10점, 지금은 100점 만점이라고 한다면 100점이에요. 100점을 넘게

줄 수 있어요(참여자 G).

**자존감 향상.** 대학 입학 후 스스로 느끼는 변화는 당당함이다. 전에는 학력이 들통 날까 봐 주눅이 들고 떳떳하지 못했는데 대학에 들어와서는 저절로 미소 짓게 되고 자신감이 넘친다.

다시 취업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다시 가서 배울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참여자 B).

아예 인생 자체가 바뀐 거죠. 나가서 자랑은 안 할 거지만 뭔가 더 뿌듯함이 있고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할까요?(참여자 D).

### 적응

적응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생애과정에서 그들의 환경에의 적응 과정,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를 발견하고 범주화하여 그들의 적응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적응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범주는 상황에 대한 수용, 자신의 기대 충족, 가족관계의 변화, 사회복지사로서의 정체감 형성, 미래에 대한 전망이었다.

### 상황에 대한 수용

연구참여자들은 대개 여성으로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딸로서 혹은 아내로서의 희생과 헌신을 감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딸로서의 희생 감수, 아내로서의 순종 수용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딸로서의 희생 감수.** 저학력 여성들이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것은 가

부장적 가족주의를 내면화한 것과는 관련이 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연구참여자들은 집에서 농사일을 돕거나 동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고작이어서 서구적 사상인 민주주의나 개인존중의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었다. 가부장적 가치를 내면화한 그들은 여자로서 희생과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대역섯 마지기 농사짓고 살만 해서 보내도 되는데 여자랍시고 아버지가 안 배워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밀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냥 말을 너무 잘 들은 거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밀어붙였으면 (학교를) 갈 수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말을 잘 들은 탓이죠(참여자 A).

엄마가 “너는 (학교) 가지 마라” 하셨어요. 속상하고 그랬는데 아무 표현도 안 했어요. 제가 일생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표현도 안 하고. 또 ‘엄마도 힘들었겠구나.’ 저는 무조건 양보해야 되고...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는 남에 대해서 좀 뻔뻔한 게 있어야 되는데 전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싫고,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아내로서의 순종 수용.** 연구참여자들은 가부장적 위계질서를 내면화하여 결혼한 후에도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순종하고 희생하며 살아왔다. 자신보다는 다른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양보하며 고된 시집살이도 묵묵히 참고 견뎠다. 또한 자신보다 학력이 높은 남편에 비해 자신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해, 남편의 폭언이나 폭력에도 무조건 자신이 곱혀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혼을 고려했지만 경

제적인 능력이 없고 부모님이 만류해 참고 살 수밖에 없었다. 시어머니는 하지 않는,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병수발을 혼자 감당하면서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참는 것만이 미덕이라 생각하며 결혼 후에도 시댁과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

시댁에서 저를 볼 때 순종하고 산다... 남편이 저희 형부한테 그랬대요. “전에는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하더니 지금은 한마디 하면 열 마디 한다.”고(참여자 C).

이 사람이 성격이 이런가 보다고... 전 맨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고쳐서 산다고... 전 무릎 꿇고 앉아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무얼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제가 고쳐서 살게요.”라고...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요... 전 살면서 두 번 이상 우겨보지 못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고, 또 자신감도 없었어요(참여자 E).

#### 자신의 기대 충족

하지만 순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던 연구참여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기대를 채우기로 결정하고 남편과 자녀들의 뒷바라지가 거의 끝난 시점에 공부를 하기로 결정한다.

기회가 되면 (학교를) 다니려고 마음먹었죠, 언제든지. 내가 늙더라도 학교를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결혼해서 가게를 하다보니까 가게는 잘 되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공부를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나는 그냥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었고 학교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무서운 게 없이 겁 없이

그냥...(참여자 A).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셋째 언니(때문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OO여고를 갔어요. “난 가면 못 쫓아갈 것 같아, 연필 놓은 지가 언젠데” 그랬더니 (언니가) “그래도 해 보니까 되더라.”해요... 여기 오고 나서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는 거 자꾸 듣고 나니까 어딘지 나도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 생각하면 늦었지만 너무 잘 한 결정이지요(참여자 C).

### 가족관계의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공부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삶의 방식이나 태도가 변화하여 가족과의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지고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부모님에 대한 용서, 부부관계의 향상,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형성, 역사회화, 시댁식구들에게 당당해짐의 하위차원 개념이 도출되었다.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 자녀들의 교육이 끝난 시점에 연구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오랜 한이자 꿈인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엄마의 희생과 열망을 아는 가족들은 용기를 주고 적극적으로 돕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중년기 위기의 극복을 위해 평소 좋은 관계를 맺었던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로 새로운 도전으로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용기를 낸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참여자의 가족들은 일생 자신들을 위해 헌신한 아내와 엄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제공한다.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어도 감히 엄두를 못 냈는데, 남편에게 얘기하니 남편도 “밀어줄게” 하더라고요(참여자 B).

아들 군대 갔을 때 “너희들 다 배웠으니 이제 엄마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큰딸이 적극적으로 “엄마, 하고 싶으면 해 봐” 해서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동생한테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내가 부모님께 받은 혜택을 누나들에게도 나눠줘야겠다. 누나 해 봐.”라고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지금 물질적으로 그 동생이 많이 도와줘요(참여자 C).

가족들은 참여자들이 공부를 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고, 컴퓨터 사용법을 알려주며 집안일을 대신해 주고 학교를 데려다주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한다.

시험은 제가 보지만, 뒤에서 리포트, 독후감 쓰고 하는 것들은 딸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참여자 F).

**부모님에 대한 용서.** 연로한 부모님께서 연구참여자의 대학 진학을 누구보다 좋아하고 미안해하시는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된다.

어머니가 제가 대학 다니는 거 좋아해요. 나보고 “지독하다”고 하면서 좋아하죠(참여자 A).

엄마가 지금 하늘에서 보고 말은 한다

면 “참 잘했다”고 그러시겠죠. 우리 아버지도 자기 자식한테는 굉장히 칭찬해주실 거예요(참여자 D).

며칠 전에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겠다고. 우리 집 오라, 니네 집 살림하랴, 학교 가랴, 교회 가랴, 딸네 가랴 아주 ‘찍고’ 계시더라고요. 기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신이 안 가르쳐 갖고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표현은 안 해도 ‘대견하다’ 그런 마음이겠죠(참여자 E).

**부부관계의 향상.** 아내를 대학에 보낸 남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공부시켜 주는 남편이 더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음으로써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아내를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 남편들은 이전보다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내는 고마운 마음에 집안일도 더 열심히 하여 보다 친밀하고 평등한 부부관계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편이) 아내가 대학을 다니는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거 좀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시험 잘 보면 나보다 더 좋아해요. 1학기 때 장학금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해요. 자랑하고 싶겠죠, 그런 게 느껴져요(참여자 B).

남편이 저보고 “장하다”고. 남들에게 우리 와이프 대학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옛날에는 저한테는 말도 안 하더니 지금은 저한테 먼저 의논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 뭔가 뿌듯하고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나를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자로 인정

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고). “집에서 ‘부엌때기’로 살림이나 하고 살지, 니가 뭘 아냐?” 하는 이런 무시하는 마음 없이... 가족들은 100% 다 지지하죠(참여자 F).

**자녀들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형성.** 자녀들은 엄마를 후배라고 부르며 격려하고, 과제를 하거나 컴퓨터 사용 시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기꺼이 도와준다. 그들은 자녀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특히 사위나 며느리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이 더욱 커진다.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시기심 등을 살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젊은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었다.

애들도 좋아해요. 우리 아들은 저하고 같이 입학했어요, 교수님이 물어봐서 엄마 대학 들어갔다고 했다면서 “엄마 공부하는 거, 나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한테 다 얘기했어. 누나는 대학원 다니고 엄마는 대학 들어갔다.”고 하니 “집이 부잔가 보지?” 했다고. “부자 아니고 엄만 장학금 받아가지고 갔다”고 했대요...(참여자 B).

아들이 “11학번, 이리와 봐!, 후배!” 해요. 그게 말 속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고 뿌듯하고 그래요... 저희 집 식구들이 스킨십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애들한테 그런 걸 하려고 노력해요. 아들이 좀 걸돌아서 제가 자꾸 장난 걸고, 스킨십을 많이 하려고 해요... 애들이 엄마 많이 달라졌대요. 전 몰랐어요. 전에는 늘

우울하고 고민이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인대요. 그런 면에선 제한된 치유 같은 거죠(참여자 E).

**역사회화.** 자녀들이 뒤늦게 공부하는 엄마의 보호자가 되어 정보를 제공하고 학과를 결정하고 등록금을 대고 학습을 도와주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등 오히려 부모 역할을 하여 역사회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제가 인천 올라오자마자 아이들이 학교에 넣더라고요. 진짜 아이들 덕이에요, 전... 좋은 백 하나 사주는 것보다 엄마 공부시키는 게 더 좋대요. 바뀌었어요. 딸이 엄마고 제가 딸이고. 자기는 뿌듯하대요. “엄마, 나 뿌듯해 힘들어도 다녀봐.”라고... 생활비도 딸내미 꺼 카드 쓰니까.., 전 그냥 학생이고... 살림을 개가 다 할 정도로... 감사해요. 처음엔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사회복지를 먼저하고 나서 신학대로 편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엄마같이 지들이 알아서 결정하고 저는 밤만 해먹고 다녀요(참여자 D).

그때는 미용학원을 다닐까, 기술을 익힐까, 돈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가 신랑을 이길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이 조언을 해 주고, ‘내가 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또 괜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또 하다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닌가?’ 고민하면, 딸은 옆에서 밀어주고...(참여자 E).

**시대식구들에 대한 심리적 자신감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에 들어와 자신감이 생기

면서 시대식구들을 대할 때 당당해지고 어름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그러한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놀라기도 한다.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저 배운 여자예요.” 농담으로 그랬더니 “그래 배워서 달라졌어.”, 그래서 뭔가 비쳐지는 면이 달라 보이는구나, 전에는 시아주버니하고 같이 얘기도 잘 못했었는데 애들 얘기 같은 거 해 놓고 뒤돌아서 ‘어찌 이런 얘길 시아주버니 앞에서 다 했을까?’ 해요(참여자 C).

### 새로운 정체감의 형성

**사회복지사로서의 포부.** 가족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권유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한 참여자들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견문이 넓어지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커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갖게 되며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서 일할 미래를 꿈꾼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왔어요. 학과는 좋고 봉사하라면 좋은데... 지금은 남을 배려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사회복지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노인들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걸 느끼죠. 우리 어머니가 89세라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럼 “왜 그걸 못 알아듣냐?”고 했는데,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그 뒤로는 그 말이 줄어들었어요(참여자 A).

사회복지를 전공한 건 만족해요...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꼭 거쳐 가라고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견문이 넓어졌죠.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뭐 재활원이라든지 장애시설 뭐 이런 데를. 이제는 그때 알고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D).

### 미래에 대한 전망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식.** 대학에 매우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이 미래에 대해 갖는 꿈은 소박하다.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 사회복지사로 취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우선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로 취업하여 경험을 쌓길 희망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나중에 노인요양원을 운영할 꿈을 가지고 있다. 또, 기회가 되면 상담 공부를 해서 나중에 노인들에게 상담 봉사를 하거나, 학사학위 과정 2년을 더 하여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따거나, 신학대학에 편입하여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싶다는 등 소박하지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취업이 안 되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므로 더 체계적으로 봉사를 하며 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해내는 삶을 꿈꾼다.

취직해야지, 그냥 집에 있고 싶지는 않아요. 우선 병원 쪽으로 해서 다만 1년이라도 해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데 까지 하면 좋겠고, 사회복지사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은데, 취업이 너무 힘들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취업하지 않아도 봉사라도 하고 싶어요(참여자 B).

졸업하기 싫어요... 이렇게 좋은 걸 배웠

는데, 저 같은 경우도 몰라서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봉사면 봉사, 아니면 취업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려니까 갈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전문지식을 더 쌓아서 부족하지만 상대방이 기운도 얻고 용기도 얻고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입지까지는 쌓아야 되니 앓나 해요. 하고는 싶은데 부족해서...(참여자 G).

##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를 통해 만학도 여성들의 환경적 특성과 만학의 의미,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이 가족들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억압한 채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온 여성들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평생의 꿈인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감을 얻고 자아정체성을 찾아 ‘만학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과 그 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이 학업을 중단하게 된 과정과 대학에 입학하기까지의 과정, 그 이후 변화한 삶을 통해 가족의 역할, 대학의 의미, 개인의 성장, 가족관계의 변화과정 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그 동안 사회적으로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던 저학력 만학도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어 가시화함으로써 길어진 중년기 이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사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50대 만학도 여성들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Mandelbaum이 제시한 삶의 영역, 전환점, 적응의 3가지 개념 틀에 따라 구성된 생애 개념들을 공통의 주제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총 14개의 주제범주가 도출되었다. 삶의 영역에서는 ‘원가족’, ‘결혼 후 가족’, ‘학교’ 등 3개, 전환점에서는 ‘진학 좌절’, ‘취업’, ‘결혼’, ‘학부모됨’, ‘중년기 위기’, ‘학교 입학’ 등 7개, 적응에서는 ‘상황에 대한 수용’, ‘자신의 기대 충족’, ‘가족관계의 변화’, ‘새로운 정체감 형성’, ‘미래에 대한 전망’ 등 5개가 도출되었다. 또한 이 범주들 내에서 총 31개의 하위차원의 개념이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영역 차원에서 발견된 주제 범주를 중심으로 볼 때,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주요한 삶의 터전은 원가족, 결혼 후 가족, 학교로 드러난다.

원가족을 중심으로 살펴본 그들의 개인적 삶에는 한국 사회가 산업화, 근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으로 겪어야 했던 역동적인 변혁의 영향이 투영되어 있다. 그들은 대개 빈곤의 타파를 외치면서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지향하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전개하던 시절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가부장적 사고가 만연하던 시대에 외떨어진 시골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좌절된 채 부모들과 도와 남자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등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야 했다. 또한 결혼한 후의 가족에서의 삶을 살펴볼 때도 대부분이 가부장권의 영향 아래 시집살이를 감내하고 가족들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는 등 대개 자신의 욕구를 돌보지 못

한 채로 중·장년기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저학력으로 인한 위축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차별과 무시 속에서 힘겹게 살아 온 경험들이 있다(백종주, 2002; 이기연, 2006). 하지만 학교라는 삶의 다른 차원을 중심으로 볼 때 그들의 삶에는 도전과 반전의 기회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장년기에 학교에서 공부를 재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평생의 꿈인 대학에 입학하여 자아실현을 이루어나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삶의 전환점 분석에서 드러난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주제 범주는 상급학교에의 진학 좌절과 취업, 결혼, 학부모됨, 중년기 위기, 학교 입학이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지리적으로 낙후한 대부분의 시골 지역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교육 기회를 주로 아들들에게 부여해왔다. 그 과정 속에서 딸들에 대한 교육 기회는 배제되고 등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연구참여자들처럼 빈곤하고 지리적으로 낙후된 환경 속에 있던 여성들은 중등과정부터 상급학교 진학이 좌절되어 교육 경험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벌’이 존재하고 학력으로 많은 것을 평가하는 학력 중시 사회에서(김동훈, 2001; 김현정, 2006) 그들은 많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고 그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그 여성들은 취업, 결혼 시,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 학부모 역할을 하게 될 때 저학력으로 인한 열등감이나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절실히 원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온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 만학을 결심하게 된다. 또

한 한편으로는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탈출하고자 하는 의도와 더불어 오랜 숙원이던 배움의 기회를 실현하고자 주부학교 입학, 고등교육과정인 대학에의 진입과 공부라는 ‘삶의 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전환점을 둘러싸고 전개된 과정을 살펴보면, 50대 만학도 여성들은 대학에서의 공부라는 계기를 통해 개인적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는 나아가 사회적으로 성인교육이나 평생교육을 강조하는 관점들(최운실, 1990; Dave, 1976; Hummel, 1977)과도 의미가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욕구의 억압을 중단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표현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중년기 우울이나 위기관리에 대한 처방을 제시한 Northrup(2002)의 견해를 현실적으로 바람직하게 실현한다는 의의를 지니기도 한다.

셋째,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적응은 상황에 대한 수용, 자신의 기대 충족, 가족관계의 변화, 새로운 정체감 형성, 미래에 대한 전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에서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가부장권의 영향권 하에 있었지만, 사회화 과정을 통해 그러한 영향으로 주입되는 가치를 자율적으로도 수용하여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딸이나 아내로서 희생, 순종, 헌신하는 삶의 양식을 받아들인 일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백종주, 2002; 신미식, 2002; 이기연, 2006). 하지만 이 여성들은 무조건 순종하던 삶에서 학생으로서의 자신의 기대를 채우는 삶을 시작하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을 찾아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려 하

고 주부학교 등을 통하여 상급학교 진학에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시도한다(김혜숙, 2003; 박연하, 2005). 한편, 50대 만학도 여성들이 공부에 대한 욕구를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50대 만학도 여성들은 결혼한 이후 헌신적으로 가족들에게 봉사해 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족구성원 간 깊은 유대감은 그들이 대학 입학에 도전할 때 용기를 낼 수 있게 지지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 많은 도움을 주어 대학생활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밑거름으로 작용한다. 그들은 처음에는 학력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학벌을 취득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대학에 입학하지만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차 공부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가족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획득한 등 삶에 대한 만족도가 증가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이나 봉사자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지니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당당한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할 전망도 형성하는 등의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요컨대, 50대 만학도 여성의 삶에서 뒤늦게 시작한 대학에서의 공부는 그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보상하고 새로운 정체성에 눈뜨며 자아를 실현해가는(민선향, 2006; 백종주, 2002; 이기연, 2006; 이정희, 2007) ‘자기 해방’의 경험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와 그에 내포된 함의를 토대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지금까지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저학력 중·장년 여성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저학력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다양한 내외적 갈등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 중년기 학습활동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것을 볼 때,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평생교육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무학력, 저학력으로 고통받으며 숨죽여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중 미인가 교육기관이나 주부학교 등을 통해 학력을 취득한 사람이 꾸준히 있어 왔으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부재한 형편이다. 앞으로 이와 같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적절하고도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발적으로 하는 공부는 학위취득을 목표로 시작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삶의 기쁨과 존재감을 느끼고, 뿌듯함과 만족감이 생겨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발달적 차원에서 중년여성뿐 아니라 장년층이나 노년층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연구참여자들이 중년기 위기를 겪으면서 40여 년간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기까지 가족들의 격려와 지지가 큰 용기를 주었고, 대학생활을 할 때, 가족들의 협조와 배려가 큰 힘이 되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가장 큰 자원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 동기를 가지고 있는 많은 중·장, 노년기의 사람들이 학습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가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지지체

계로서 가족관계가 힘들어지면 위축되고, 삶의 의미를 잃기 쉽고, 관계 자체에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게 되어 무력감에 빠져 자신을 돌보기 어렵다. 건강한 중년기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예방적 또는 치료적 차원의 부부,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는 학벌 위주의 사회로서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사회적 편견과 따가운 시선으로 그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학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갖게 할 수 있는 사회로의 분위기 개선을 위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별과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노력과 더불어 만학의 의욕과 열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보내는 환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 결과를 통해 50대 만학도 여성들은 공부를 시작함으로써 자아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삶의 태도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학력 취득을 위해 대학에 들어왔으나, 점차적으로 공부 자체의 즐거움을 발견해가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아쉬움과 함께 학생 신분을 벗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졸업 이후 다음 단계의 학업을 계속하거나 전공을 살려 일을 찾기를 희망하였다. 이들이 졸업 이후 다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

는다.

첫째, 면접 조사 대상이 50대 만학도 여성에 국한됨으로써, 다른 연령층의 저학력 여성들도 이와 같은 경험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0대 여성들을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특수한 역사적 과정에서의 조건이 반영되기도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저학력의 원인을 차별화시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소수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기는 해도 인천 지역에 소재한 같은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전공자들 중에서만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전국에 있는 만학도들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연구 대상을 초졸, 중졸로 제한하여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무학으로 대학을 들어간 사람들이나 초, 중등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중도에 포기한 학습자들, 중년 남성 만학도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만학과 결혼이 갖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기혼자로 연구대상을 국한해 선정하였으나, 미혼자들 중에도 여성 만학도의 경험을 지니는 사람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만학의 경험을 전개하였으므로, 취업한 경우 그들의 직업 세계나 교우관계 등 사회적 관계 측면을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

내에서는 거의 다루어진 적이 없는 저학력 50대 만학도 여성들의 경험에 특수하게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탐색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저학력으로 살아가는 중년기 여성들이 공부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평생교육적 관점에서도 학습활동이 중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중년기 이후의 삶을 위해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은화 (2007). 성인 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립정신병원 (2001).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 보건복지부 용역보고서. 서울: 중앙문화사.
- 김동훈 (2001). 학벌주의의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적 대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영숙, 이근무 (2008). 탈성매매 여성들의 생애사 연구: 그 끝없는 탈주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학, 60(3), 5~30.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김현정 (2006). 한국의 학벌주의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 (2003). 성인학습자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을

-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선향 (2006). 성인들의 배움에 관한 연구: 학위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연하 (2006). 중년여성의 학습경험 유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성의 (1996). 한국 성인의 사회교육 참여 정도와 그 관련변인 분석.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종주 (2002). 저학력 비문해 여성의 경험 세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미식 (2002). 여성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 평생교육학연구, 8(1), 121~151.
- 이기연 (2006). 성인여성의 학습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방송대 주부학생의 사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화연 (2011). 생애사를 통해 본 공공부조수급 여성 가구주의 삶. 아시아여성연구, 50(1), 137~138.
- 이은정 (2003). 중년기의 부부관계 만족도 위기감 및 부부교육 요구도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의 (1997). 대학사회교육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 (2007). 만학도의 대학생활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13(3), 89-116.
- 정태화 (2003).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형돈 (2006). 블루오션 컨셉트 기반 성인 만학도 개별 맞춤형 교과목 개발·운영·평가 프로그램.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환 (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 순 (1986). 한국의 인구와 인구 변동. 한국사회학, 19, 3~12.
- 최운실 (1986). 성인교육유형에 따른 교육 참여 동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운실 (1990). 한국의 평생교육. 서울: 교학사.
- 홍완호 (1978). 우울증 빈도의 남녀대비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reswell, J. W. (2005). 질적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Dave, R. H.(Ed). (1976).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Pergamon Christine.
- Hammen, C. (2003). Social stress and women's risk for recurrent depression.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6, 9~13.
- Hummel, C. (1977). Education today for the world tomorrow. Switzerland: UNESCO.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Current Anthropology, 14(3), 177~206.
- Northrup, C. (2002). 폐경기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 {The wisdom of menopause}. (이상춘 역). 서울: 한문화(원전은 2001년에 출판).
- Mandelbaum

1차원고접수 : 2013. 05. 10.  
심사통과접수 : 2014. 03. 08.  
최종원고접수 : 2014. 03. 25.

## **A Life History Study on Women in 50s Who Started Studying Late: Focusing on Life Dimensions, Turning Points and Adaptation**

**Jung-Min Kim**

**Youn-Shil Choi**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life history study was to analyz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meanings of studying in old age, and change processes in lives for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To achieve this purpose of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women in 50s who started studying, majoring in social welfare in college.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common categories and sub-concepts were extracted according to Mandelbaum's three conceptual frameworks: life dimensions, turning points, and adaptation. In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extracted categories were 'family of origin', 'family of procreation', and 'school' in life dimension, 'frustration to further studying in advanced levels', 'getting jobs', 'marriage', 'parenthood for school', 'mid-life crisis' and 'entering middle and higher schooling' in turning points, and 'acceptance to their own circumstances', 'meeting their own expectations', 'the change of family relationships', 'making of a new identity' and 'vision of future' in adaptation. Especially, in this study, some results to show enhance of self-esteem, construction of self-identity and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through the experiences of studying in college among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were emerged. By tracing the women's life experiences and visualizing their issues, this study has some helpful implications: Late learning activities in their age were able to give opportunities to be a positive way to spend the extended old ages more healthily and meaningfully as well as opportunities to achieve their self-actualization.

*Key words : women who started studying late, life history, life dimensions, turning points, adaptation*